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2월호를 낭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묵상집 1년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11/1~11/30) 구독료의 일부는 선교비로 지원 됩니다.
- * 1년 정기구독 가격: \$60.00 (1권당 5불/ 매달신청 가능)
- * 신청 - 도서부
- 2026년도 주일애찬을 섬기실 분들은 애찬실에 게시된 주별 신청란에 기념 내용과 함께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애찬 섬김>은 생일, 결혼, 출산, 진급, 사업 등을 기념하면서 전 교인을 애찬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 2026년도 달력을 한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12월 월식(월축복) 예배

일시: 12월 1일(월) 오전 6시 / 장소: 대예배실

* 12월 가정별 기도카드(월식헌금봉투)는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정성껏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주일 세례신청

세례일 : 12월 21일(주일)

세례교육 :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 초등부실 * 문의 : 교회 사무실

• 임원회 안내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대예배실

참석대상 :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 (임원)

• GMC 한미연회 동남부 지방 온라인 합동 구역회

일시 : 12월 14일(주일) 오후 4시

참석대상 : 교회 임원

* 온라인 ZOOM 접속 주소는 속장 단톡방을 통해 추후 전달 예정

• 교회 창립 기념 신년 부흥성회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 18일(주일)

주제 :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

강사 : 곽주환 목사 (한국 베다니감리교회 담임)

• 재정부 안내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사역장 또는 팀장님께서는 재정부에서 준비한 양식으로 2026년 한해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을 11/30까지 재정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자현 장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홍 목사
- EM-다문화, Youth/ 김학섭 목사
- 유아유치부. 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 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34,702.91

일반현금 \$32,102.00	십일조: \$6,302.00	추수감사: \$23,078.00
건축현금 \$2,340.91	감사: \$750.00	주일: \$680.00
선교현금 \$260.00	기타: \$1,292.00	속회: \$26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4권 48호

2025년 11월 30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2025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풀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대강절 첫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찬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시도신경

찬송 Hymn / 28장(통28)

복의 균원 강림하사

기도 Prayer / 전정환 권사

찬양 Choir / 호신나 찬양대

- 사랑의 빛 비추소서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성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뉴 2:25-27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대강절 1주차

< 소망의 사람 >

Week 1 of Advent – Person of Hope

▲ 파송찬송 Closing Hymn/ 충만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칩니다.

2025년 11월/12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1월 30일	1부	사랑교구	담당자	전정환권사	온유교구
	2부			유영재장로	
다음주 12월 7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이현숙권사	소망교구
	2부			정복순권사	

금주의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뉴(Lk) 2:25

<설교 요약>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인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기다림과 준비로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강절은 4주 동안 지킨며, 매 주일마다 초를 밝히며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탄에 ‘그리스도의 초’를 밝힘으로써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긴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400년 신구약 중간 기의 침묵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상실한 채,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흑의 시대 한가운데, 성경은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의로움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외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전인적 의로움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듣고 반응할 줄 알았으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응성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에게 평생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의 기다림을 단순한 일상적 기다림이 아닌 믿음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 하늘의 위로를 향한 기다림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므온은 소망의 사람이었고, 그의 소망의 초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는 시대의 흐름에 위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가져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

<설교 요약>

그는 메시아의 도래가 단순히 민족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안아 주시는 하늘의 위로, 영적 회복, 평화의 선물임을 알고 기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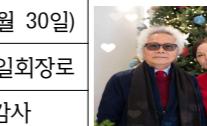
시므온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민감했으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므온처럼 성령 안에서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형식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나눔 질문 >

1. 대강절이 “새해의 시작”이라면... 내가 올해 신앙적으로 가장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2.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루고 계신 것 같나요?
3. 내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 신앙’ 혹은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4. 시므온처럼 성령이 내 삶에 머물며, 성령의 응성과 지시하심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은?)

금주 예찬 섬김

	금주 (11월 30일) 손은명, 김일회장로	다음주 (12월 7일) 최혜영, 홍성천권사
	범사감사 온유교구	범사감사 소망교구